

가장 값싼 원고와 OECD

이 중 한

서울신문사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선진국 대열에 나서기 위해 한국은 95년 3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희망대로 된다면 올해 OECD 회원국이 될 것이다. 현재 OECD 회원국 수는 25개국. 26번째 나라가 되면 선진국들과 같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갖가지 제도나 법령들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고쳐야 하고, OECD 기본협약에 따라 80여종에 달하는 각종 통계 같은 것들도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자질구레한 일들도 뒤따른다. 이 통계 예비작업을 위해 통계청이 마련한 <OECD 국가의 주요 통계지표>라는 책자도 이미 나와 있는데, 이중 두어 항목을 여기에 옮겨 보려고 한다.

하나는 교육항목. 전문대 이상을 뜻하는 고등교육취학율은 한국 포함 26개국 중 한국이 49.3%로 캐나다·미국·핀란드·뉴질랜드에 이어 5위. 인구 10만명당 고등교육학 생 수는 캐나다·미국·뉴질랜드 다음으로 한국이 4위이다. 이런 항목에서는 OECD 가입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교육통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최하위로 34.2명. 좀 엉뚱해보일 만한 불균형이 드러난다.

또 하나의 항목은 도서발간종수. 이 자료는 92년기준 21개국만 나와 있는데, 우리를 포함 22개국 중 총발행종수는 영국·독일·미국·일본·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에 이어 한국이 8위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22개국의 도서내용별 분류 중 한국의 수치는 총류·사회과학·자연과학·지리역사 부문에서

최하위인 22위인가 하면 종교에서는 1위, 어학에서는 3위라는 또다른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지는 것인가. 우리에게 물량적 외형과 이에 비해 철저하게 빈곤한 내실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게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좀 지적해 보려는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이즈음 우리 출판을 보자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도 좀더 내실적으로 시각을 바꾸어야 할 과제들이 눈에 띈다.

우선 한 예로 출판불황이 계속되자 '인세 파괴'를 하자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뜻은 신문 지면에도 보도되었다. 출판사간에 특별히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런대로 우리 저작자들은 정가 7%에서 10%의 인세를 받아왔다. 출판 판매량과 관계없이 인세를 받아왔다는 점에서는 외국에 비해 큰 손색은 없었다고 해야겠다. 이를 이제 5%선까지 내려보자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모양이다.

과연 괜찮은 불황탈출의 방법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우리처럼 기본부수가 적은 출판에서 5%의 인세란 결국 저작자에게 1백만 원도 안되는 수십만원대 인세를 주게 되는 셈인데, 때로 5백부쯤 간헐하게 된다면 20여만원 정도라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 짧은 원고 1편 수준의 금액으로 얻어낼 수 있는 책 한권분 내용의 질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앞에 예시한 최하위급

도서분야를 조금이나마 상승시키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도 적당한 대가일까. 이런 문제를 나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번역물에 있어서도 이 수준으로 원고를 얻으려면 아마도 매당 2천원 미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의 질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황타개의 싸구려 원고 구하기는 결과적으로 더욱 낮은 차원의 도서들을 간행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 뒤끝은 피할 수 없이 버려지는 책들만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계속시킬 것이다. 이것이 출판의 생명을 위해 옳은 지향일 수는 없을 터이다.

베스트셀러 원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저 인세를 정해 출판해보다가 어느날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출판부터 철저하게 상업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필수로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 뉴스를 읽으면 어떤 작가에게 몇백만달러를 주었다는 것으로부터 베스트셀러 만들기 전술이 시작되는 것을 자주 알아낼 수 있다. 소부수의 양서이든, 베스트셀러이든 인세나 고료를 절감함으로써 출판의 승부수를 얻어낸다는 관례란 없다. 돈을 아낄 때와 쓸 때를 가리는 일에 있어 가장 값싼 원고의 채택처럼 가망 없는 선택은 없다는 점을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출판이 살려면 비싸고 확실하고 보다 완전한 저작물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이라면 말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188호/1996년 3월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종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허연
 한동림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욱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팩이나 시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디자인은 승부다

표지·본문디자인 / 편집대행 / 광고디자인 / 광고카피 / 일러스트레이션 / 컴퓨터그래픽

디자인에는 그 출판물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다름기획의 디자인을 거친 원고, 완전무장한
베스트셀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1208호 / TEL. 707-0572 / FAX. 707-0573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이력서
2)자기소개서
3)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리세기퍼블리싱
a publishing Co. 스위스그랜드 호텔 앞
☎(02)395-1945 ☎(02)396-3964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9-2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132호
☎110-611

GOOD DESIGN GOOD PARTNER

소박한 심정에, 소신껏 표지디자인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화부터 주시면 대행관계자료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양무리
출판미술의 모든 것

TEL 267-0396, 272-8097